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공회를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8월 7일(주일) 제1405호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

NGO 더멋진세상 기후행동 캠페인

동유럽 몰도바 호수 복원 사업

NGO 더멋진세상이 8월 한 달 동안 ‘기후행동 캠페인’을 한다. NGO 더멋진세상 기후행동 캠페인은 동유럽에 있는 나라 몰도바의 두보브카 호수 복원 사업을 시작으로 두보브카 마을 총체적 회복사업까지 이어진다. 동유럽 몰도바 두보브카는 주민 400여 명이 생활하는 작은 시골 마을이다. 이 마을에 약 7ha 면적의 호수가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 바짝 말라버린 상태다. 마을 생태계의 중심이었던 두보브카 호수가 말라버리면서 마을 주민들의 생활은 말할 것도 없고, 농사지를 환경과 그로 인한 수입 창출이 불가능한 심각한 상황에 놓였다.

NGO 더멋진세상은 가장 시급하게 몰도바 두보브카 호수 복원 사업을 벌여 주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한 부대시설 구축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마을 주민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소득 창출을 위한 사업도 전개할 예정이다.

NGO 더멋진세상의 두보브카 호수 복원 캠페인과 두보브카 마을 총체적 회복사업을 위한 준비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몰도바 정부로부터 두보브카 호수 30년 사용권을 승인 받았고, 지난 6월부터 두보브카 호수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했다. NGO 더멋진세상 몰도바 호수 복원 캠페인은 8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 NGO 더멋진세상의 기후행동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성도들의 모금으로 동유럽 몰도바 두보브카 마을 호수 복원 사업을 할 예정이다.

후원: 573-910009-09905(하나은행)

문의: 02-2271-2246

여름 아웃리치 벌써 종반(終盤)

“끝날 때까지 기도의 끈 놓아서는 안돼”

2022년 여름 아웃리치가 벌써 종반(終盤)에 접어들었다. 8월 7일(일)을 기점으로 대다수 공동체와 사역팀이 국내외 여름 아웃리치를 마무리한다. 8월 말까지 몇몇 성인공동체의 국내 아웃리치가 남아있는 상태다. 2000선교본부에서는 성도들에게 “여름 아웃리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도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면서 “아웃리치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와 선교지가 함께 선교하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아웃리치 지역과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홍주 목사(2000선교본부)는 “올해도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너 성도님들을 축복한다”면서 “이제는 아웃리치의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중보기도 해달라”고 권면했다.

올해 온누리교회 여름 아웃리치에는 국내 158개 팀, 2536명, 해외 50개 팀, 427명, 온라인 16개 팀(8월 5일 기준)이 참가했다.



故 하용조 목사 11주기 추모예배를 지난 8월 2일 Acts29비전빌리지에서 드렸다.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추모 기간 보낸 온누리교회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 소망

온누리교회가 ‘故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을 보내며 다시 한번 하용조 목사의 믿음을 본받기로 결심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8월 1일(월)부터 5일까지(금)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고인을 기억하고 추모했다. 이 기간 온누리교회는 새벽기도회(월~금)에서 하용조 목사가 생전 사전행전 말씀으로 설교한 영상을 상영했다. 또 지난 8월 2일(화)에는 Acts29비전빌리지에서 ‘하용조 목사 소천 11주기 추모예배’를 드렸다.故 하용조 목사 추모예배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하성석 두란

노서원 부원장(하용조 목사 장남), 온누리교회 리더십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예배는 홍성호 장로(당회서기)의 대표기도, 블러썸 챔버의 특선, 이재훈 담임목사의 메시지, 유가족 인사 등의 순으로 드렸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약함을 자랑하는 믿음(고후 12:7~10)’을 주제로 설교했다. 이목사는 “하용조 목사님은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사도 비율을 닮은 목회자였다”면서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하용조 목사님의 믿음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

하고,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한다”고 권면했다.

홍범식 장로(중증로공동체)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하용조 목사님에게 주신 꿈과 비전을 다음세대에 전하고 연결하는 브리지(Bridge)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고 싶다”고 말했다. 박일구 선교사(두란노해외선교회)는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에 크게 감동해서 선교사가 된 지 25년이 지났다”면서 “앞으로도 선교의 바통을 굳게 잡고 계속 전진할 것”을 약속했다. 안태환 장로(양지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님 추모 기간을 보내면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용조 목사님이 계셨다면 과연 무엇에 집중하셨을까를 묵상했다”고 고백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이촌 3, 4주차장(거북선나루터) 사용료 지원

8월 7일부터, 오전 8시~오후 3시 30분, 3시간까지 할인

8월 7일(일)부터 매주 주일 서빙고온누리교회를 방문하는 성도들이 이촌 3, 4주차장(거북선나루터)을 이용하면 교회에서 주차장 사용료를 3시간까지 지원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할인 등록 차량이 대상이다. 주차장 이용시간이 3시간을 넘으면 주차장 사용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서빙고온누리교회 로비에 설치된 주차안내부스에 와서 담당자에게 차량번호를 전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패드를 이용해서 차량번호를 등록할 수도 있다. 패드에 차량번호 4자리를 입력하고, 차량을 선택한 다음(좌측 화면), 3시간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 이촌 3, 4 주차장에서 출차할 때 할인 적용이 되지 않는 성도들은 전화(02-3215-3126)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촌 3, 4주차장(거북선나루터)과 서빙고온누리교회를 오가는 셔틀도 운영된다.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는 차세대

차세대 여름사역 8월 21일 마무리

온누리교회 차세대들이 빛과 소금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 차세대 여름사역은 예수님의 꿈아이(영아, 유아, 유치부)와 꿈이자라는 땅(초등부, 유년부, 소년부) ‘예수님 이야기: 세상의 소금과 빛’, 파워웨이브 ‘나는 다르게 산다’를 주제로 진행하고 있다.

차세대 여름사역은 지난 7월 2일(토) 서빙고, 양재, 부천, 강동 예꿈 어드벤처가 포문을 열었고, 오는 8월 20~21일 열리는 대전 꿈땅 어드벤처가 대미를 장식한다.

/ 홍하영 기자

맛있는 말씀 해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엡 5:22)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이 과거 잘못된 가부장적인 문화가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에베소서 5장 21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복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다. 복종은 아내의 몫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안에서 해야 하는 의무이다.

왜 성경은 아내에게 남편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가부장적인 문화 때문이 아니다. 여자로서의 아내와 남자로서의 남편이 서로 기질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내에게 복종, 남편에게 사랑을 강조하는 것은 부부관계에서 서로에게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다. 가장 어려운 것을 해야 진정한 부부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종처럼 되라는 의미가 아니다. 남편에게 지혜로운 조

언을 하되,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라는 것이다. 사실 판단과 결정은 여자들이 탁월하다. 여자들의 현실적인 상황 파악과 계산 능력은 남자들보다 월등하다. 남자들은 미래지향적이고, 진취적인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현실적 문제를 무시하거나 자존심과 의리 등을 앞세워 그릇된 판단을 할 때가 많다.

하나님께서 아내가 보기에는 어린아이 같은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라고 명령하셨다. 남편이 가정에서 결정권을 가져야 가정의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이다. 남편이 결정권을 행사한다면 아내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남편이 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많은 대화를 나눠야 한다. 이런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순종을 배운다. 아이들도 아빠의 권위에 복종하게 되고, 가정이 아빠를 중심으로 안정감을 찾게 된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 마음에 방(room)이 있다고 비유하면 여자의

마음에는 방이 하나지만, 남자는 방이 여러 개다. 여자는 한 남자를 사랑하면 그것이 사랑의 전부가 되지만, 남자는 그렇지 않다. 아내를 사랑하면서 친구도 사랑하고, 일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한다. 심지어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 가톨릭교회 결혼 교육에서 남편에게 던지는 질문이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나?”이다. 많은 남자가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지만 어머니는 대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 질문은 아내는 다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것임을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다.

이와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다. 얼마나 많은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고 살고 있는가? 반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과 남편이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해내야 진정한 부부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다. 아내가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남편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남편을 살리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 외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도 자기를 포기하고 아내를 살리는 길이다. 남편 또는 아내를 위해 나를 포기할 때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한 몸을 이루는 진정한 부부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다. 서로를 위해 자기를 포기한 부부의 사랑이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의 끝없는 성숙과 영원한 기쁨을 누릴게할 것이다.



이은일 장로
(성북공동체,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

〈생명의 삶〉 QT 프리뷰 (preview)

홍수 심판과 불완전한 새 인류

8월 8일부터 21일까지
창세기 4:1~11:32



묵상포인트 1: 첫 사람의 불순종 이후 죄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한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아담 가정에서 일어난다. 아담에게서 새로운 자녀가 나고 그 후손이 번성하지만, 악행은 더 심각해져 죄가 땅에 가득해진다.

부패한 세상을 멸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자.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 아담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만 받으시자 가인은 분노해 아벨을 쳐 죽인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벌하시면서 그의 생명 보존을 위해 표를 주신다. 살인죄는 가인의 후손 라멕을 통해 더욱 두드러진다. 하나님은 새로 태어날 아들 ‘셋’을 통해 아담의 족보를 이어 가신다. 아담의 후손 중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된다.

한편,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지자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에서 멸하기로 결정하신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묵상포인트 2: 인류를 새롭게 시작하기 위

한 하나님의 계획은 ‘홍수 심판’이다. 노아는 하나님 의 명령에 어떠한 반문도 없이 온전히 순종한 첫 번째 인물이다. 하나님은 방주 밖의 모든 생명을 멸하시고, 노아 가족으로부터 새롭게 시작하신다. 홍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 방주와 하나님의 구원, 무지개와 하나님의 언약을 묵상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 제작을 세세하게 명하신다. 노아는 하나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해 오랜 시간 방주를 짓는다. 때가 되자 ‘하나님’이 친히 방주 문을 닫으시고 홍수가 온 땅을 뒤덮는다.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 물로 나누셨는데, 그곳들이 터지니 40일 동안 내린 큰비로 방주 밖 생명체가 모두 죽는다. ‘첫째 달 초하룻날’(1월 1일)에 물이 걷힌 것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됨을 의미한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새로운 인류가 된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복과 동일하다.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생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징표로 ‘무지개’를 하늘에 두신다.

묵상포인트 3: 노아와 그의 가족은 새로운 인류지만, 죄성을 지닌 불완전한 사람들이다.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로 칭찬받던 노아가 실수를 한다. 노아의 자손은 불신과 교만으로 바벨탑을 짓는다.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행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묵상하자.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 장막에서 벗은 채

로 누워 있을 때, 둘째 아들 함이 이를 보고 형제들에게 알린다.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함의 후손 가나안을 저주한다. 노아가 한 저주와 축복은 형제간 서열을 정하고, 그 후손에게도 영향을 끼친다. 노아의 자손들은 동방으로 옮겨 가다가 땅에 이르러 도시와 탑 세우기를 도모한다. 그 목적은 “온 지면에 흠여짐을 면하자”는 것이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교만한 행위를 보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해 그들을 흠으신다. 하나님의 경륜을 외면하고 인간적 욕심을 따르는 일은 결국 하나님이 흠으신다.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데라와 아브람(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던 한 가정을 불러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 적용을 위한 가이드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이 제물 드리는 이의 삶에 주목하심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에서 경건함을 유지하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했다. 온전한 순종은 구원으로 이끄는 열쇠임을 기억하자. ▶바벨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 준다.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늘 겸손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일본 부흥을 위해서!

현재 일본 여기저기에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물결들이 하나의 큰 파도가 되어 지금까지 무너뜨릴 수 없었던 큰 장벽을 무너뜨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공동체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일본 전역의 교회를 방문해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홋카이도부터 오키나와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순회하라는 주의 음성을 듣고 각지역을 방문중에 많은 동역자를 만났습니다.

함께 섬기고 기도하는 이들이 일본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큰 열쇠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 하나가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함께 찬양해주시고 기도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은 일본 교회의 네트워크형성을 위해, 또 스포츠계의 8000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스포츠를 통한 ‘구원사역’의 확장을 위해 2021년 1월부터 2년여 동안 캠핑카로 일본종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먼저 기다리시는 아바 아버지와 함께 많은 것을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과의 모험에 많은 분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걸음이 되도록, 저희 가정과 동역자들의 건강을 위해, 일본의 8천 여 교회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 김진국 선교사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이며, 비합리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근거도 없이 뛰어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증거고, 경험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인간의 합당한 반응은 믿음뿐입니다.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이 첨가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인간에게는 믿음조차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는 인간을 완전히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믿음 없는 인간 안에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일까지 하셔야만 했습니다. 약속을 통해 믿음의 통로가 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재차 확인해 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인해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인해 된 것입니다”(1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받은 약속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약속을 주신 것은 지구상의 한 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한 시대에 국한된 일도 아닙니다. 온 세상,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주적이고 범세계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파괴된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창조,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자 모든 사람을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세상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주인,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키는 주인공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그분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가 됩니다.

약속을 믿음으로 얻는 의

로마서 4:13~25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을 따른 상속자입니다”(갈 3:29).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에게 속한 사람이 되며,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라면 우리도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약속을 통해서 얻어지는데, 믿음에 결코 더해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외에 율법도 함께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싸우기 위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깊이 뿌리내린 율법은 모세 시대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율법이 주어지기 430년 전에 주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율법이 있기 훨씬 전입니다. 할례도 창세기 17장에서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15장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어떤 요소도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

“만일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가 된다면 믿음은 무효가 되고 약속은 파기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진노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습니다”(14-15절).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은 일체 타협이 없습니다. 온전히 행위만을 요구합니다. 율법은 철저히 행동 그 자체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의 복음은 믿음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온전히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됩니다. 약속을 통해 얻는 믿음에 결코 더해질 수 없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반면 약속을 통해 얻는 믿음에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망이 없는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고 믿었습니다. 이는 ‘네 후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나 돼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고 도리어 믿음이 굳건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습니다”(롬 4:18-22).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었던 이유는 믿음이 소망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믿은 하나님, 곧 죽은 사람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됐습니다”(17절).

때로 약속만 바라보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거나 약속을 흔드는 상황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라는 자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된 것 아닙니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는 것’과 ‘약속하신 분을 믿는 것’을 구별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는 약속하신 분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약속 그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약속을 했느냐입니다. 약속하신 분이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라는 소망을 둬으로써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도 자기 외아들을 기꺼이 바치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고 불릴 사람은 이삭으로 말미암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유로 말하자면 그는 이삭을 죽은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은 것입니다”(히 11:17-19).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라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믿음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아브라

함만을 위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우리, 곧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을 믿는 우리도 위한 것입니다”(23-24절).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와 사망 가운데 죽은 자 되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생명을 잉태케 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서 영원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 그것을 체험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셔서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는 믿음을 의로 여기십시오.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로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습니다”(25절).

아브라함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했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체험합니다. 믿음이 의의 원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약속을 주시고, 그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허황된 개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실체는 죄입니다. 우리 삶에 가장 큰 장애물은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절실한 것은 생명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의 여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날마다 믿음으로 주장하며 살아가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저출산 해결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저출산 문제 TF 구성 및 세미나 개최



이상준 장로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 강남D공동체)

2022년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안타까운 사망자 발생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루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그 땅에 평화가 오기를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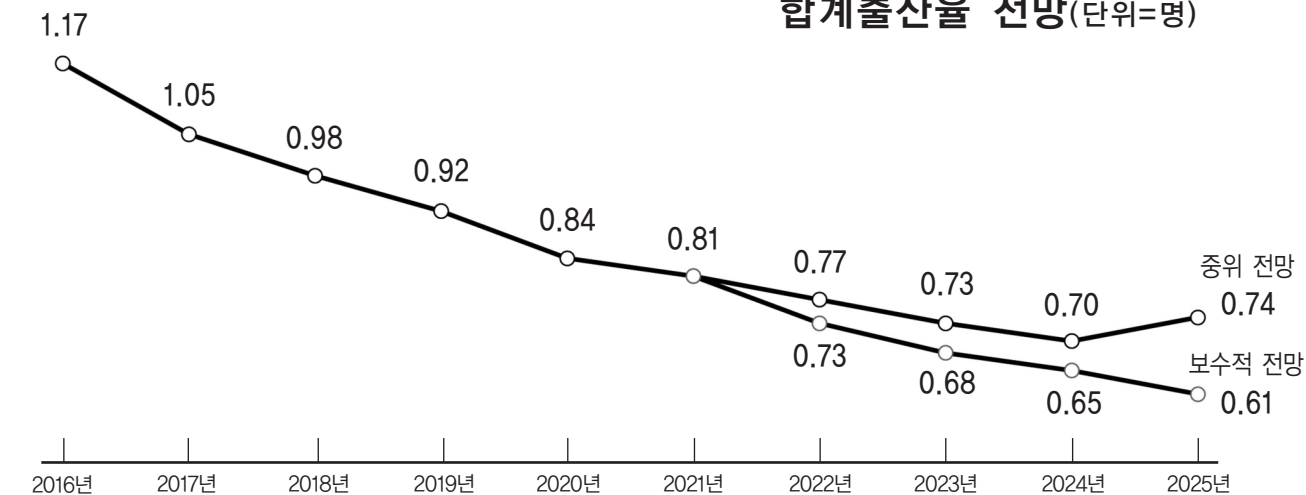
그런데 대한민국은 이보다 심각한 전쟁을 지금 겪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아무도 이 전쟁의 심각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공격해야 할 적도 명확히 파악이 안 되었고, 지금으로서는 승리에 대한 확신도 없다. 과연 이길 수 있는 전쟁일까?

대한민국 저출산과의 전쟁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겪고 있는 전쟁은 인구감소의 주요 요인인 ‘저출산(저출생)’과의 전쟁이다. 지난 7월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 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인구가 5천1백7십3만8천만 명으로 1년 전인 2020년보다 9만1천 명 감소했다. 사실상 대한민국의 실질 인구감소기가 도래했다. 올해 2월부터 8월 3일까지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보다 많은 수가 대한민국에서 1년 만에 사라졌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행정 단위상 1개의 ‘군’이 1년 만에 통째로 사라진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인구조사를 시작한 이래 72년 만에 처음 맞는 실질 인구감소 현상이다. 더군다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감소하는 등 여러 요인으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인구감소 시점이 앞당겨져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2022년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출생·사망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Death Cross)가 고착화했다. 대한민국의 ‘인구절벽’ 현상이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2021년 출생아 수는 2십6만5백 명으로 전년(2020년)보다 1만1천8백 명(4.3%) 감소했고, 합계출산율도 0.81명으로 0.03명 줄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19년 기준)인 1.61명 대비 절반 수준으로, 30개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하위다. 지금 상황이 지속하면 대한민국은 약 120년 뒤 인구가 1천만 명으로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2750년 인구가 1만 명으로 자연소멸될 거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상황이 지속하면 지금 같



*합계출산율 =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의 평균. 2022년부터는 전망치.
자료: 통계청

은 정치, 경제, 군사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다. 태평성대 시기는 지나가고, 우리 손자 손녀의 세대에는 또다시 주변 국가의 합병 위협과 소수민족으로의 전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

이미 정부는 저출산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국가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지난 15년 동안 약 380조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상황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제1차~제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추진으로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을 방지하는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불충분한 가족지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사회구조적 요인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인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제4차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고 추진 중이다.

제4차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가능 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기본 관점의 전환, 개인의 권리향유 보장,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등 세 가지 정책 추진 방향과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보조를 맞춰 한국 교계와 기독교 단체에서도 국가적 재앙인 저출산 문제를 ‘출산돌봄국민운동’(CBS, 2021) 등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기 시작했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도 “대한민국이 소멸하면 한국 교회도 소멸한다”는 절박함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성도들에게 인식시키고, 인구감소 문제 극복을 위한 온누리교회 차원의 실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 그동안 많은 국내외 석학들이 논의와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또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및 실천 대안을 제시하고 실행하고 있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우선, 온누리교회

에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방법을 찾아보고, 교회에서 시도해보고자 한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및 제도변화, 사회문제, 사회심리 측면에서 변동의 흐름을 바꿀 수 없는 전제조건으로 인식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여성 인권 중심,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며, 그에 대한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가족지원 투자를 OECD 평균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주거 등 청년층의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책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또 한편에서는 인구학자들이 도시화의 문제점, 경제성장의 이슈 등을 지적하고 있고, 현 인구구조의 변화를 뉴노멀로 인식하고, 저출산의 해법을 제시하는 주장도 있다.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여러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과연 저출산 관련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주제로 토론할수록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그리스도인이란 복잡한 문제일수록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셨을까’라는 질문에서 그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故 김준곤 목사의 ‘백문일답’을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라는 뜻을 가진 신조어. 자신이 상대방에게 받기 원하는 칭찬이나 원하는 대답을 정해놓고 상대방에게 질문하는 사람을 뜻함’로 이해하고 경청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결국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 누구도 풀지 못한 난제를 풀어내셨고, 그 해법은 지금도 통용되고 있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해야 한다.

저출산의 문제도 면밀히 살펴보면 근본적

으로 인간의 교만과 이기심, 욕심에 그 원인 있다. 기존의 모든 기득권을 인정하면서 문제점만의 해소로 풀어낼 수 없는 문제다. 정부나 사회단체의 연구와는 다르게 교회가 접근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본원적인 해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새로운 무브먼트(Movement)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시대적 소명이다.

결혼과 출산은 하나님의 선물이자 축복

복잡한 문제일수록 단순하게 풀어가야 한다. 상호 인과관계 분석을 통해 어떤 결과와 결말이 나올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논리적이고 그럴듯한 해결책보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간과하고 있던 솔루션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교회에서 시도해야 한다. 성경적 가정관 및 결혼관의 재정립, 청년 및 차세대의 결혼과 성에 대한 교육, 현세대와 맞지 않는 교회 제도의 개선, 교회 공간의 재활용 방안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해 먼저 교회와 성도가 실천하고, 사회가 동참하고 싶어 하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실천 운동으로 확산해야 한다.

온누리미래성장위원회는 저출산 문제에 관심 있는 전문가 그룹 및 세대별 오피니언 리더로 TF를 구성하고, 올해 11월 문제 인식의 공유와 실천방안 도출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기대한다. 무엇보다 가정을 이루고, 축복 가운데 새 생명을 출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과정이 개인적, 물질적 손해와 고통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알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한다.

문의: onnuri.fgc@gmail.com

W청년부
인천 동산교회 아웃리치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

‘이주민 가정 어린이 성경학교’. 여러 아웃리치 중에서 내가 인천 동산교회로 가기로 한 이유다. 나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짧게나마 직장생활을 했다.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 있는 이주민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W청년부 인천 동산교회 아웃리치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싶었다.

몇 번의 온라인 미팅으로 W청년부 인천 동산교회 아웃리치 준비가 시작되었다. 늦은 시간에 진행되는 온라인 미팅이었지만 영상 너머로 들리는 기도 소리가 굳어있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했다. 무엇보다 아웃리치에서 만날 영혼과 인천 동산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곳에서 만날 아이들이 기대되었다.

아웃리치 첫날,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인천 동산교회에 도착했다. 동산교회는 상가에 있는데 작은 예배당, 작은 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교회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맞이하는 것으로 아웃리치가 시작되었다. 찬양, 설교, 성경공부, 점심시간, 레크리에이션 등 프로그램이 정신없이 이어졌다. 한 공간에서 유초등부가 함께 성경공부를 해서 그런지 시끌벅적했다. 아이들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목소리 높여 말하느라 목이 아프기도 하고, 한꺼번에 세 아이가 몰려와서 동시에 안아주느라 힘들기도 했다. 평소 아이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W청년부 아웃리치팀이 인천 동산교회에서 이주민 가정 어린이를 대상으로 성경학교를 하고 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걱정했는데, 그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아이들을 보자마자 사랑이 샘솟는 것을 느꼈다. 그런 내 모습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나중에 생각해봤더니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려보내신 사랑이었음을 깨달았다. 내가 사랑을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내가 사랑을 받았다. 인천 동산교회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모두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와 함께 한 시간을 잊지 않기를, 이 추억을 밑거름 삼아 삶에서 힘

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왔으면 좋겠다.

아웃리치 둘째 날은 외부 활동(트램펄린 카페와 방탈출 카페)을 했다.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안전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아이들을 위한 짧은 기도회를 했다. 동그랗게 둘러선 채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기도하는 우리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아이들을 보면서 찬양과 기도해서 그런지 눈물이 더 많이 나고, 마음이 더 많이 쓰였다. 기도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나에게 다가와 휴지를 건네주고 꼭 안

아주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슬퍼서가 아니라 기뻐서 우는 거야”라고 말해주었다. 순수하고 착한 아이의 모습에 더욱 눈물이 났고, 그 마음이 정말 감사했다.

아웃리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무심코 찬양을 틀었는데 ‘복음 들고’라는 곡이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예전에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라는 가사가 외닿았는데, 이번에는 “주 다스리시네”라는 가사가 마음에 외닿았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그 발길을 아름답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나온 결과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느냐’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이다.

W청년부 인천 동산교회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끄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큰 은혜를 알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형묘 자매
(W청년부)

여호수아청년부
필리핀 아웃리치

톤도의 아이들 그리고 선교사님의 눈물

나는 계획형 인간이다. 하나님께 먼저 여쭙보고 계획을 세울 때도 있지만, 주로 나를 신뢰하고 계획을 세운다. 이번 여름 아웃리치는 사실 내 계획에 없었다. 5월 말 즈음 심정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었다. 학업을 지속할 힘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스스로 ‘쉽’을 선택한 경험이 없어서 휴학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주일, 여호수아청년부 예배에서 하나님께 ‘휴학할 지혜와 용기를 주신다면 아웃리치를 가겠습니다’라고 기도했다. 조건부 기도가 좋은 기도가 아닌 것을 알지만, 당시 나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기도했다.

며칠 뒤 휴학을 결정했고 필리핀 톤도 아웃리치를 신청했다. 필리핀 아웃리치를 선택하기 전에 다른 지역을 검색했는데, 세계 3대 빈민가이자 ‘쓰레기마을’이라 불리는 필리핀 톤도 지역에 대한 설명을 보고 마음이 갔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김숙향 선교사님의 이야기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 팀은 인원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준비기간도 빠듯했다. 출국 며칠 전에 팀원 한 명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었다. 6명이 450명이 넘는 아이들을 섬겨야 한다는 물리적 한계가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날씨도 걱정이었다. 아웃리치 내내 뇌우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곡절과 걱정을 안고 필리핀 톤도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어려



여호수아청년부가 ‘쓰레기마을’로 유명한 필리핀 톤도 어린이, 청소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다.

움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확신했다. 날씨는 화창했고, 아이들의 눈동자에서 빛이 났다. 출국 전까지는 우리가 사역을 준비하고 진행한다고 생각했는데, 필리핀 톤도 땅을 밟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해놓으신 사역에 동참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에게 동참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우리 팀은 김숙향 선교사님이 섬기는 러브센터와 드림센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

한 사역을 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을 주제로 썬캡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찬양 집회, 창조과학 특강 등을 했다. 나에게 이번 아웃리치가 첫 번째 아웃리치였다. 그래서 아는 것도 없고, 도울 수 있는 일이 적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있는 팀원들과 현지 리더들을 붙여주셨다. 아웃리치 일정 내내 오히려 내가 섬김을 받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팀원들 그리고 선교사님과의 교제 및 나눔을 통해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느낄 수 있었다. 믿음의 결실을 따고 있는 내가 믿음의 선배들(팀원들)과 동역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특히 타국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필리핀 톤도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그 계획의 일부분에 나와 우리 팀을 초대하신 이유를 어렵듯이 알 것 같았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과 아이들의 눈동자 그리고 선교사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그 생생한 기억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내가 학업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때, 필리핀 톤도 땅을 밟고 서울로 돌아올 때 하나님이 나에게 시편 23장 1-4절을 들려주셨다. 또 선교사님과 팀원들을 통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배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는 삶, 나의 목자 되신 여호위를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푸른 초장에 누여지는 삶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깊이 사랑하고 싶다. 그 첫걸음이 된 필리핀 톤도 아웃리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손희원 자매
(여호수아청년부)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고백도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 ‘당장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묻는다면 대답할 자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어도 확신이 없을 수 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누구에게 쓰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 즉 성도들이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믿는 것과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항상 비례해서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수 있다. 가령 거부(巨富)의 상속자로 태어난 아이는 아직 자기가 얼마나 부자인지 알지 못한다. 어린아이로 살다가 어린아이로 죽으면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재산

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알지 못한다. 구원을 받았지만 결코 구원이 주는 기쁨과 평강을 누려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할 수도 있다. 비슷한 예를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다.

창세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다. 그리고 그를 통해 이루실 큰 민족에 대한 비전을 약속하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에 이르게 된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때 아브라함이 보인 행동은 그 땅을 이탈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이의 선택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결정이었다.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창 15장). 흔들리는 그의 믿음을 붙들 어주시기 위해서 과거에 약속하신 언약을 상기시켜주셨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본처 사라가 아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다. 하나님

은 다시 한번(창 17장) 동일한 언약을 상기시키며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되물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란다.”

대놓고 하나님의 언약에 반기를 들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바로 1년 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후사에 대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창 21장). 본처 사라를 통해 이삭이 출생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뀐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전혀 갖지 못하고, 심지어 거절하는 삶을 살았던 그가 100세에 기적처럼 얻은 아들 이삭마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릴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신앙도 구원의 여정에서 흔들리고 넘어질 수도 있다. 심지어 구원의 사건마저 의심하고 희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의 불순종과 거절마저 뛰어넘는 신실함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붙들고 계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12).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은 의심과 거절과 절망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다. 항상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한다. 구원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평강과 기쁨이기 때문이다.



최대홍 목사
(J4U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중년기, 새로운 정체성 세우고 받아들이는 시기

“열심히 살아왔던 날들이었다.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키우면서 아등바등 살아왔다. 사회 생활에서도 성공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하지만 중년이 된 지금 돌아보니 내가 기대했던 성공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모습인 것 같다. 아이들은 이제 청소년이 되었고, 예전과 같은 다정다감한 대화가 거의 없어졌다. 부부관계도 예전과는 달라졌다. 서로를 향한 뜨거웠던 사랑이 많이 현실적으로 된 것 같다. 아이들을 위해서 지출되는 재정적 부담은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자주 재정적인 압박을 느낀다. 미래를 위한 노후 준비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치고 벅잡게 살아가는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화가 났다. 마음에 서운함과 공허함도 물밀듯 쏟아져 들어왔다. ‘나는 돈만 벌어서 주는 기계인가?’,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음을 추스르기 어렵다. 갑자기 마음에 찬 바람이 불면서 한 겨울이 되어버린 것 같다.”

한 가정의 고민이다. 이처럼 인생의 중년기에 접어들면 생각이 많아진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깊이 과거를 고찰하기도 하고, 현재와 미래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을 또다시 시작한다. 등산으로 본다면 정상에 도달해서 올라왔던 여정을 뒤돌아 볼 수 있고, 내려갈 길도 살피볼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어찌하든 앞으로 걸어가야 한다. 그런데

중년 즈음 되면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오르막 길이 아닌 내리막 길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예전처럼 열정적으로 인생길을 걸어가지 못하기도 한다. 중년기에는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하게, 자신이 얻은 수많은 삶의 지혜와 경험을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고심하면서 나아간다.

중년기는 삶과 인생, 자신에 대해 더 깊이 고찰하는 기회다. ‘나는 돈만 벌어서 주는 사람인가?’, ‘나는 가족들 뒤처다끼리만 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들면 심적으로 정돈되지 않는 혼란스러움이 생긴다. 사춘기 때 인생을 고민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고민을 또다시 시작하게 되는 기점이 중년기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뛰어 왔고, 가족들을 위해서는 성심껏 봉사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족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희미해지는 것을 보거나 가족의 필요만 채워줘야 하는 현실적인 역할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자각하게 되면 처지가 더없이 초라해 보일 수 있다. 사실 살면서 자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은 늘 해오던 과제이다. 그러나 인생의 중간 즈음에서는 더 깊고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중년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야 하는 시기이자 새로운 정체성을 수용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정체성을 세우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그저 희생만을 강요당했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돈만 벌어서 주었

던 사람이 아니다”, “나는 그저 가족의 뒤처다끼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논박이 필요하다. 마음에서 자신의 처지를 처량하게 느끼도록 하는 수많은 부정적인 메시지와 싸울 필요가 있다. 부정적인 메시지와 생각은 마음을 깊은 늪으로 끌고 들어가는 어두운 힘이 있다. 부정적인 깊은 늪에 빠져들면 긍정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빼앗기게 된다. 따라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부정적 메시지를 논박해야 한다. 그리고 새롭게 자신의 모습을 명명할 수 있는 메시지를 찾아야 한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골 3:17). 그 바탕 위에 자신을 하나님이 특별하고 독특하게 만드신 작품임을 인정하고, 재수용하며 감사하는 게 필요하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정체성을 재해석했다. 그는 자신을 형들이 팔아버렸던 버림받은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낸 자”라고 믿었다.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을 연민에 빠지게 하는 내면의 부정적인 소리가 들리면 우리는 성경에 근거한 믿음의 선편과 인식을 통해서 정체성이 회복되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다.

중년기에 나타나는 정체성의 도전은 ‘새로운 의미의 추구’라는 인생 욕구와도 맞물려있다. 현재 자신이 의미가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느끼면 사는 게 그리 혼란하지 않을 수 있

다. ‘나는 돈만 벌어서 주는 사람인가’라는 자문에는 자신의 삶과 노력과 애씀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질문과 연관이 있다. 의미를 새롭게 부여하거나 자신이 살아 있음을 느끼게 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찾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봉사의 가장 큰 동기는 자신의 봉사로 누군가 도움을 얻을 것에 대한 행복과 기쁨, 그리고 의미이다. 어느 날 찾아온 삶의 물음표에서 의미를 찾는 노력을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의 격려와 위로, 지지와 인정이다. 가정에서 충분한 지지를 받는 사람의 심리적 안정성은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 지속적이고 충분히 서로를 인정하고 관심을 표현한다면 삶에 닥치는 파도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을 것이다(시 128).

나눔: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가정에서의 역할이 있다. 아빠, 엄마, 남편과 아내 등. 이 중에서 최근 당신이 버겁다고 느껴지는 역할이 무엇인가? 배우자와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십시오.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CGNTV ‘어메이징 그레이스’ 첫 선

크리스천 유명인들의 신앙과 삶, 매주 금 오전 11시



CGNTV의 새로운 토크쇼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12일 첫 방영된다.

CGNTV가 신앙고백 토크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선보인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크리스천 유명인들의 진솔한 신앙 고백과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간증 프로그램이다. 배우 유유선과 가수 이세준(유리상자)이 MC를 맡는다.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첫 번째

게스트는 팝페라 가수 박기영이다. 가수 박기영은 가요에서 팝페라로 장르를 바꾼 이후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는데 그 간증을 프로그램에서 고백한다. 기타리스트 함춘호(서울신학대학교 교수), 수학강사 차길영, 우크라이나 감대오 선교사 등 다양한 분야

크리스천 유명인들이 출연할 예정이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첫회는 8월 12일 기독교 OTT ‘풍당’에서 방영된다. 8월 19일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CGN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너희는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다!”

아름다운피켓, 대치동 학원가 생명존중 캠페인

아름다운피켓(프로라이프 비영리 단체)에서 지난 7월 27일(수) 대치동 은마아파트 사거리 일대에서 ‘2022 대치동 학원가 생명존중 캠페인’을 했다. 이번 캠페인은 치열한 입시경쟁에 휘둘리는 대치동 학원가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게 목적이었다. “소중함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면 된 거야”, “모든 생명은 태어 때부터 소중하

다”, “성관계는 결혼 안에서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해요”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태아의 소중함, 낙태의 위험성, 청소년 자살 예방, 건전하고 올바른 성교육 필요성 등을 호소했다. 서윤화 대표(아름다운피켓)는 “치열한 입시경쟁에 짓눌린 학생들에게 존재 자체만으로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 정현주 기자

난민들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소망음악회’

지난 8월 6일(토) 오후 7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소망음악회’가 열렸다. 소망음악회는 뉴욕 IN2온누리교회가 주최하고, 홀리임팩트가 협력, 줄리어드 예일음대 맨하탄 매네스 음악대학 동문회가 후원했다.

소망음악회에는 뉴욕 IN2온누리교회 음악인들이 대거 참여했다. 첼로 강에스터, 피아노 김은옥, 김채린, 최소영, 바이올린 노예리, 오하은, 장희진, 이연재, 소프라노 최예슬이 공연했다. 소망음악회 티켓 판매 수익금과 선교기금은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의료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레바논의 의료기관 ‘인투 클리닉(IN2 Clinic)’을 설립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보라통독 기본과정’ 참가자 모집

‘보라 통독 기본과정’이 8월 29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린다. <보라 통독> 저자 이상준 목사(양재온누리교회)가 강의한다. 성경 개론, 율법서, 역사서 등을 주제로 16주 동안 강의를 이어진다. 성경을 통독하기 원하는 성도와 목회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회비는 11만 원이다. 8월 22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준다. 온누리교회 등록 교인은 OBC 2학점이 부여된다. 문의: 02-2078-3279

함께 나누는 여름사역 이야기

온누리신문에서 ‘여름사역 이야기’를 모집한다. 2022 여름 아웃리치, 여름 캠프 등에서 받은 은혜를 담은 원고와 생생한 사진을 기다리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hha0@onnuri.org)로 간증과 사진(사역 사진, 간증을 쓴 성도 사진)을 보내면 된다. 간증 원고 분량은 A4용지 1장(글자 10포인트) 내외다. 아웃리치 간증과 사진은 7~8월 온누리신문에 게재한다. 문의: 02-6959-0001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 모집

9월 14일~11월 30일 매주 수 오전 10시 양재 드림홀

시니어아카데미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양재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진행된다. 시니어아카데미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시니어의 믿음과 삶을 배우며 시니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

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성서화 탐구’, ‘인터 굿’, ‘창조론’, ‘Drama therapy’ 등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1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5만 원. 문의: 010-8989-3473

사모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9월 19일~21일 평창 켄싱턴 호텔

두란노어머니학교에서 ‘본부 121기 사모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19일부터 21일까지 평창 켄싱턴 호텔에서 진행된다. 사모어머니학교는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기도하는 아내와 어머니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프

로그램이다. 전도사 사모를 포함해 사역자의 사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특히 미자립교회 사모들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다. 선착순 30명 모집한다. 회비는 무료. 문의: 02-2182-9114

우리들 작품 자랑하기!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에서 격주로 게재 중인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

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남대문희망공동체 찬양인도자 모집

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 2층

남대문희망공동체에서 찬양인도자를 모집한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부터 50분까지 20분 동안 남대문희망공동체 예배에서 찬양인도를 하면 된다. 악기를 다루지 못해도 된다. 반주자가 있다. 남대문희망공동체는 남대문 5가

(서울역 일대) 노숙자 및 쪽방촌 주민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다. 매주 주일 오전 11시 30분 ISB서울빌딩(용산구 한강대로 363-2) 2층에서 예배드린다. 문의: 010-8964-5275

함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온누리!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과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재미있게 풀이해주고, 한 주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긴급한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온비아 갈라디아서 참가자 모집

온비아 갈라디아서 참가자를 모집한다. 온비아 갈라디아서 과정은 9월 4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주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온비아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의 삶과 사역을 공부하고, 복음을 역사적, 신학적, 실천적 논증을 통해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과정이

다. ‘복음을 위해 바울을 준비시키시다’, ‘복음 변론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맡기시다’, ‘사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인정하다’ 등을 주제로 8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9월 10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3만5천 원. 문의: 010-6221-1028

